C·A·N· #2

NEW MEDIA ART 2015

ACROSS VOICES -속삭임

Heidi Kumao, "Egress"

C.A.N. (C): "Egress" 라는 작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Heidi (H): "Egress (떠남)" 은 영사된 네러티브 시리즈 작품 중에 최신작인데요, 제가 육체적으로 극한으로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었죠. 락트인 증후군, 정치범, 노예, 독재 정부의 규제와 같이 -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의적 피난처를 비밀스럽게 일구어가면서 참을 수 없는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 작품에 영감을 주었어요.

일상의 오브제(Objects)로 만든 조각 받침대 위로 투사된 영상을 통해 시각적 내러티브가 펼쳐지죠. 정밀한 이미지 매핑 기법을 이용해 색상을 입히는 과정에서 오브제들은 연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무대의 일부가 됩니다. 빛나는 오브제(objects)들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 오브제들의 그림자와 상호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관객을 불안하게 하는 동시에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양분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죠. 관객에게 있어 투쟁이란 재현된 광경에 대해 충돌하는 상반된 인식들을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된 감옥수들에게 있어 도전이란 절망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균형을 찾는 것이죠.

책 더미와 벽 너머로 "Egress" 의 영상이 비춰집니다. 반복되는 6분 3초의 영상에서 디테일한 사운드트랙, 움직이는 조각들과 라이브액션 비디오, 콜라주 사진들이 하나의 독특한 풍경으로 융합되어 펼쳐집니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기법과 함께 독재 정권 아래 억압된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 내러티브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들은 금지된 책들을 읽고 종교적으로 금지된 일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가상의 도시풍경은 젊은 여인들이 연을 날리고,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달리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무대가 됩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이러한 여인들의 금지된 행동들을 무자비하게 정지시키죠. 하지만 여인들은 정부가 가공해낸 2차원적인 현실을 미묘한 방식으로 폭로합니다. 영화의 2차원적 벽을 걸어감으로써, 혹은 영화의 환영적인 표면을 완전히 찢어 버림으로써, 여인들은 그녀들이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그녀 자신들만의 현실을 책과 페이지들로 만들어 갑니다.

C: 이 작품을 만들때 Azar Nafisi의 회고록 "테헤란에서의 로리타 읽기" 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책인지 또한 어떠한 계기로 이 책을 접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H: 당시 저는 단편 영상과 비디오 클립을 다양한 오브제에 투사해서 환영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환영들은 오브제를 시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 새로운 시리즈 작품의 주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때, 저의 책장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아마도 책장에 있던 논픽션 책들을 통해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관심있었던 주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당

C.A.N. (C): Please tell us about "Egress."

Heidi (H): "Egress" is the latest in my series of projected narratives that trace personal experiences of extreme physical confinement and isolation. The individuals whose lives inspire these works come from widely disparate circumstances: Locked-in Syndrome, political prisoners, slavery, and restrictions imposed by an authoritarian government, but all overcame an intolerable sense of hopelessness by secretly cultivating a creative refu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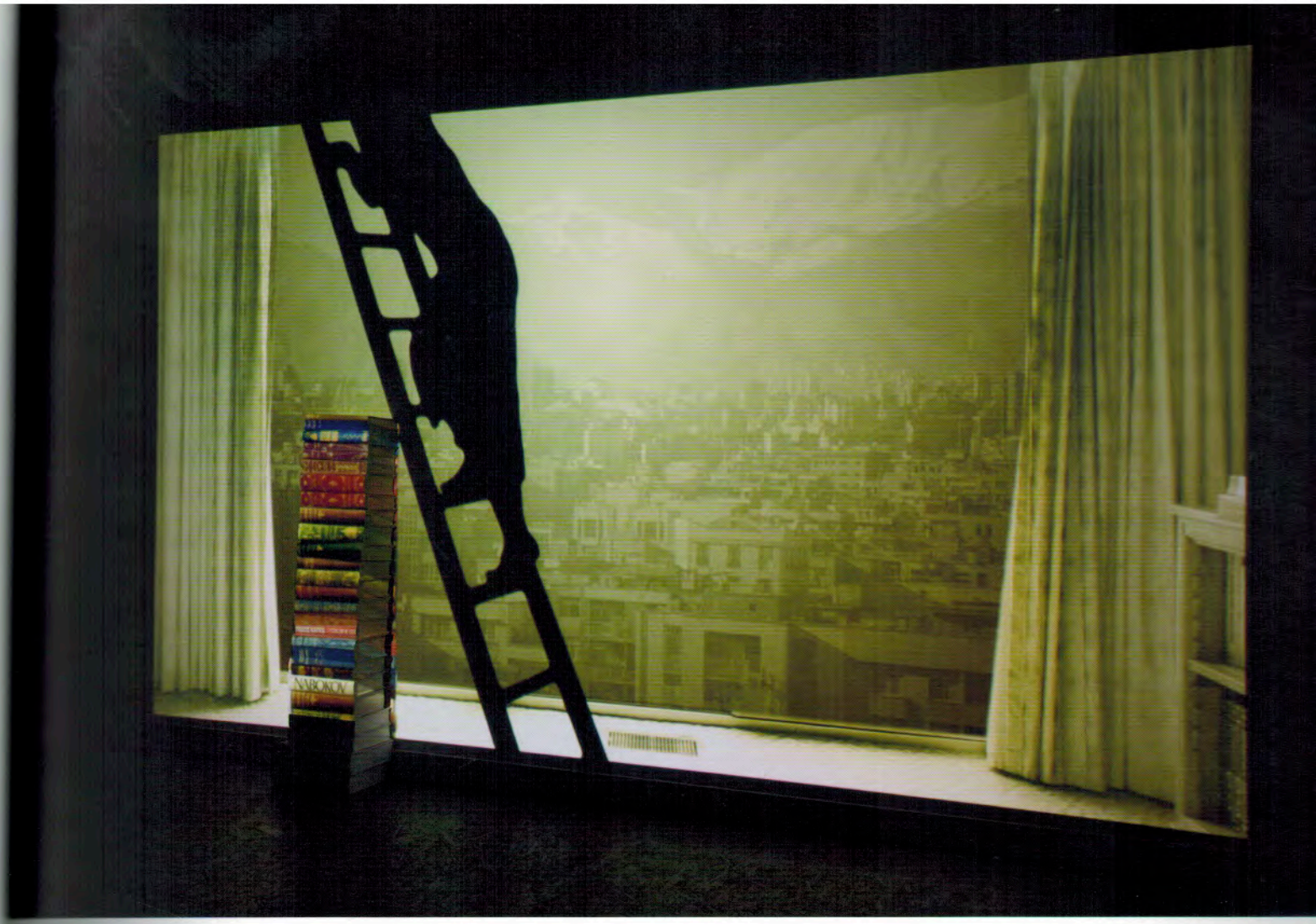
These visual narratives unfold through multiple layers of video projected onto the surfaces of everyday objects that I select as sculptural props. Precision image mapping allows me to recolor these surfaces with projected light-- transforming the objects into transient set elements in an ongoing theatrical story. Shadows of the (real) illuminated objects interact with shadows of non-existent objects. The effect is unsettling and requires the viewer to reconcile the visual dichotomy of real and unreal. The core of this project lies in this very act of mediation, drawing a parallel between the viewer's and the captive's experiences. For the viewer, the struggle is negotiating conflicting perceptions of the same tableau. For the prisoner, who is the subject of the narrative, the challenge is to balance the coexistence of hopelessness and creativity.

"Egress" is projected onto a stack of books and also the wall behind it. Presented in a continuous 6:30 minute video loop, a detailed soundtrack, animated segments, live action video and collaged photos are fused to create a peculiar cityscape in which events unfold. This surreal work is made cohesive by a visual narrative presenting the experience of women stifled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 These women reclaim self-determination by reading banned books and engaging in routine behaviors that have been prohibited by religious mandate.

An imaginary cityscape acts as a stage on which young women engage in routine activities such as flying a kite, skipping or running in public space. Now forbidden, these acts are violently shut down by the government in scene after scene. However, the women subtly expos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two-dimensional, manufactured reality in which they live. By walking through walls of the 2D facade of the film, or by ripping completely free of the movie's illusionary surface, they ultimately transcend their situation and create their own reality through the book and page.

C: You said that you were inspired by Azar Nafisi's memoir, "Reading Lolita in Tehran" when making this work. Please tell us about this book and how you came to read this?

H: I was experimenting with projecting animated sequences and video clips onto various objects in an effort to create illusions that transformed the objects in a poetic way. I had yet to realize a subject for this new series of works and at



Heidi Kumao, *Egress* (2014)

시 제 책장에는 "저항적 정원: 전시에 정원 가꾸기," "죄수의 발명품," "사자의 굴," "정원에 있는 죄수,"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잠수종과 나비" 그리고 Azar Nafisi의 "테헤란에서 로리타 읽기"가 있었죠. 이 책들은 극도로 억압된 상황을 창의력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다 읽은 후에도 그들의 삶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죠. 그들의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쥐 대변으로 체스판 만들기 (Terry Anderson, "사자의 굴")

-임시 수용소 캠프에서 배추 재배하기 (Japanese-Americans," 반항하는 정원")

-비밀 첩보 글쓰기 (넬슨 만델라)

-비밀리에 금지된 문학작품 읽기 ("테헤란에서 로리타 읽기"의 여인)

-한 글자당 눈을 한번 깜빡여서 회고록 쓰기 (Jean-Dominique Bauby "잠수종과 나비")

이 이야기들은 이 시리즈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작품들 각각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로리타 읽기" 책에서 작가이자 교사인 Azar Nafisi은 여학생들과 함께 금지된 서양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비밀모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이란

some point, I turned to my bookshelf for inspiration. Perhaps my assortment of non-fiction would reveal a theme I had already chosen subconsciously. The books on my shelf at that time included: "Defiant Gardens: Gardening during Wartime," "Prisoner's Inventions," "Den of Lions," "A Prisoner in the Garden,"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and Azar Nafisi's, "Reading Lolita in Tehran." These books share a common motif: the use of creativity to survive extreme confinement. I was struck by the accounts of their daily lives that resonated with me long after I finished the books. The stories included acts such as:

-making a chess set from mouse dung (Terry Anderson, "Den of Lions")

-planting lettuce in a temporary internment camp (Japanese-Americans,"Defiant Gard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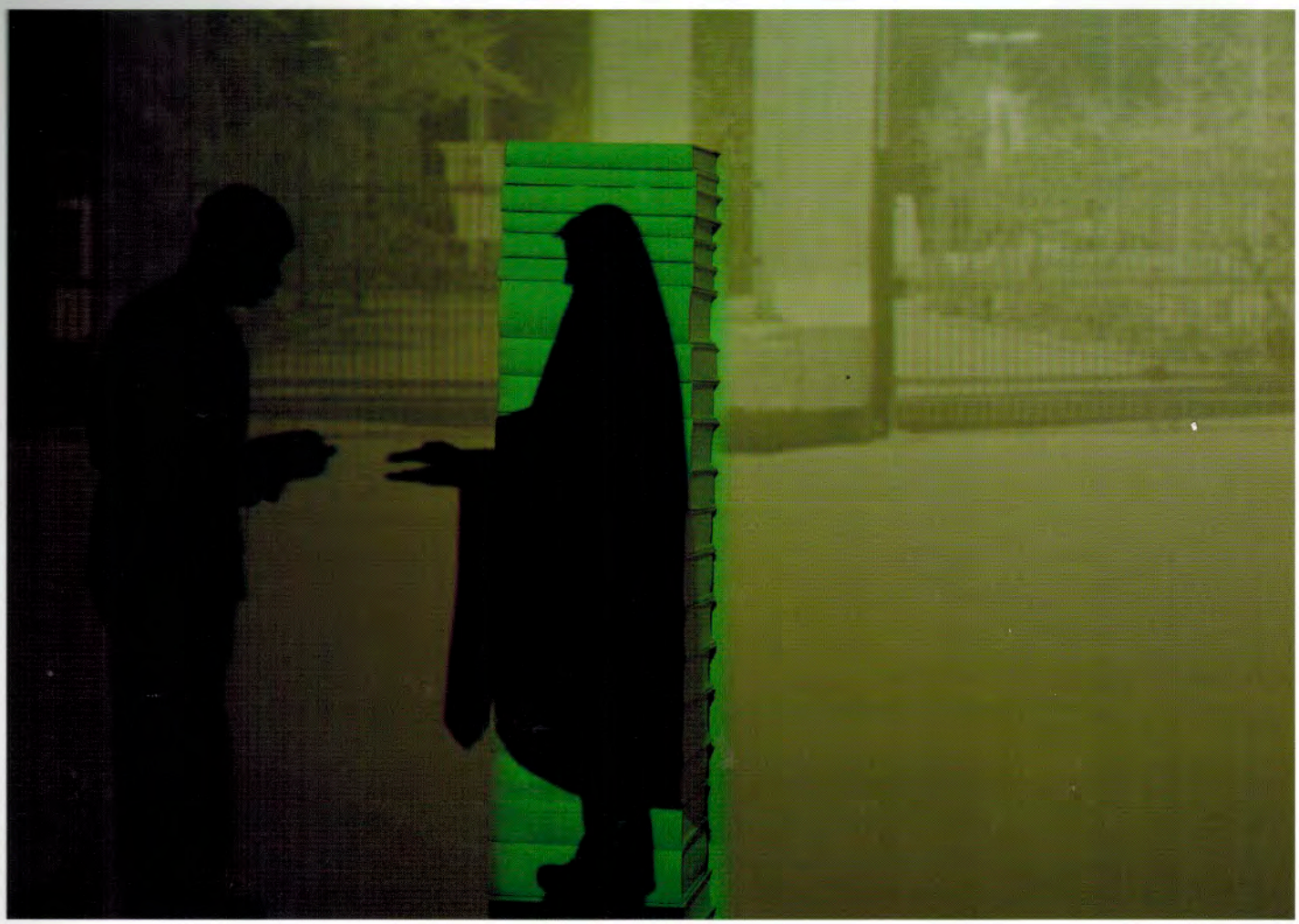
-writing undercover (Nelson Mandela)

- reading banned literature in secret (women in "Reading Lolita in Tehran")

-writing a memoir one letter at a time by blinking one eye (Jean-Dominique Bauby,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These narratives became seeds from which five separate art works in this series developed.

In "Reading Lolita in Tehran," writer and teacher Azar



Heidi Kumao, *Egress* (2014)

이슬람 공화국 초기에 쓰여진 그녀의 회고록에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엄격한 근본주의 정부 하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요. 책 전반에 걸쳐, 그녀는 여자들의 몸과 외모의 규제위반 여부를 끊임없이 검사해 온 "도덕 경찰"에 대해 언급하죠. 화장, 매니큐어, 머리카락 노출, 달리기, 춤, 줄넘기, 뛰기, 안기 와 같은 신체적 활동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거죠. 비밀 독서 모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상상력의 산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 우리는 소설에서 발견한 열린 공간과 우리가 처한 현실의 닫힌 공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어요."

"... 우리는 탈출하려고 했고 우리만의 작은 한 줌의 자유라도 만들려고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상상력의 공간,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기본적인 감정을 읽고 표현해도 안전한 공간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은유적 공간을 만들었고, 이는 시적인 변화의 목적이 되었죠. 정부가 규제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한 줌의 자유"를 지니고 사는 캐릭

Nafisi describes her secret gatherings with female students to read and discuss forbidden Western classics. Set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er memoir recounts the absurdity of living under an unpredictable and strict fundamentalist government. Throughout the book, she refers to the regulation of women's bodies and appearances by a "moral police" that constantly checked for violations: make up, nail polish, exposed hair, physical activities such as running, dancing, skipping, jumping, hugging. Of the reading group she wrote:

"I formulated certain general questions for them to consider, the most central of which was how these great works of imagination could help us in our present trapped situation as women."

"...we did hope to find a link between the open spaces the novels provided and the closed ones we were confined to."

"...we tried to escape and to create our own little pockets of freedom."

As I read the book, I was struck by the absolute necessity of creating one's own space: the space of the imagination, spaces for physical freedom, a safe place to read and express basic emotions. This gave me license to use metaphorical spaces through visual storytelling and a purpose for my

터를 통해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C: 이 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어땠나요?

H: 관객들은 항상 주인공이 사진 틈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졌다가 몇 초 뒤 거실에서 다시 나타나는 장면에서 항상 놀라곤 하죠. 또한 여인의 실루엣이 벽에 핀으로 박혀 박제나비로 변하는 장면에서도 많이 놀라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 스토리의 내용에 공감했던 것 같고 시적이고 초현실적인 영상의 이미지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Azar Nafisi 작가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녀에게서 열광적인 답변이 왔죠.

"이렇게 멋진 비디오를 저에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여인들이 억압에 저항하고, 글을 읽음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의 현실을 재정립해나가는 창의적 방법들과 연관시키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에는 독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현실을 몰살시키고 우리를 우리들만의 상상의 산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죠. 억압에 저항하다가 결국 우리의 빼앗긴 현실을 다시 되찾고, 재정립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제어해나가기 위함이죠. 당신의 작품에서 이러한 가슴 저미고도 단순한 아름다움, 또한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에 대한 설득력 있는 표현들을 정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C: "Egress" 와 "CNNplusplus" 를 포함해 다수의 작품들이 권력 투쟁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주제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H: 아트를 통해 권력 구조,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사색하고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애니메이트된 장면, 유머, 강렬한 이미지 및 특이한 예술 형태의 창조를 통해, 저는 작은 제스처, 심지어 가장 개인적이고 시적인 것들까지도 주목할 만한 저항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행동들을 통해 반란과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음을 드러내게 된다."

"모든 제스처, 심지어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 "테헤란에서 로리타 일기" 에서

그녀의 회고록에서 Afisi은 어떻게 정부의 제한 법률이 여성의 일반적인 활동을 바꿔놓았는지, 또한 그녀들을 어떻게 불온 분자로 낙인 찍었는지에 대해 서술해 놓았어요. 베일 밖으로 머리카락 보이기, 보석 또는 메이크업 하기, 감정 표현의 특정한 형태를 보여주기, 서양 음악 듣기, 서양 문학 읽기, 또는 서양 옷 입기와 같은 평범한 행동들은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신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나온 여인들은 그들에게 금지되었던 이런 단순한 행동들을 시도했고, 이러한 작은 저항들은 독자로서 저의 심금을 깊게 울렸어요.

poetic transformations. I create tension by having characters inhabit "pockets of freedom" that are within the government regulated public space.

C: What was the response from the audience regarding this work?

H: Viewers are always surprised (and gasp) when the main character steps into a slit in a photograph and disappears only to reappear inside a living room seconds later. They are also stunned when one of the silhouetted women is pinned to the wall and turns into a taxidermic butterfly. I find that people are generally sympathetic to the story's content and engaged by the poetic and surreal quality of the images.

I wrote the author, Azar Nafisi, and she responded enthusiastically:

"Thank you for sharing this marvelous video with me. I loved the way it associates the idea of freedom with women's creative ways of resisting oppression and reading as a means to redefining reality, one's own as well as that of the oppressors. After all a dictatorial mindset attempts to confiscate our reality and redefine us as figments of its own imagination, and the struggle against oppression in its deepest sense is to retrieve one's confiscated reality, to redefine it, thereby controlling it.... I enjoyed your piece because of its poignant and simple beauty, its eloquent way of expressing the desire for freedom...."

C: Many of your works including "Egress" and "CNNplusplus" seem to deal with socio-political issues involving power struggles.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subject matters of your works?

H: I use art to tell stories about individuals who navigate and subvert power structures, systems and institutions. Through animated tableaus, humor, striking visual images, and the creation of unusual art forms, I demonstrate how small gestures, even the most private and poetic, can become significant acts of defiance.

"...all the normal acts of life became small acts of rebellion and political insubordination."

"This was a country where all gestures, even the most private, were interpreted in political terms."

-from "Reading Lolita in Tehran:"

In her memoir Afisi describes how the government's restrictive laws transformed women's ordinary activities, re-inscribing them as subversive. Simple acts became undeniably charged in this political climate: letting hair show outside of the veil, wearing jewelry or make-up, showing certain forms of emotional expression, listening to a western record, reading a western book, or wearing western clothing. The women in the book savored these simple acts once they were forbidden and these small transgressions resonated for me as a reader.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일시적이지만 "자유의 작은 공간" 을 찾는 노력의 중요성에 집중했어요. 캐릭터의 자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죠. 왜냐하면 관객이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아내고 그 행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가길 원하거든요. 심지어 가장 작은 제스처마저도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죠.

"CNNplusplus" 는 인터렉티브 아트로, TV 시청자들이 카페나 대기실 같은 공간에 있는 모니터에 틀어진 라이브 CNN 생방송 뉴스가 보이는 방식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었죠. 이 작품은 우리가 대기장소, 카페, 레스토랑, 바, 사무실, 공항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접하는 TV 화면들의 편재성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9-11 이후 TV 채널을 케이블 뉴스 채널로 고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요, 그중 거의 모든 경우에 CNN 헤드라인 뉴스를 틀어놓더라고요. 좀 과하단 생각이 들었죠. 뉴스 화면들을 보면서 거의 모든 화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스크린을 분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 작품에서는 뉴스 방송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장난스러우면서도 비판적인 병치 방식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리믹스 하면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창의적 개입을 통해 관객이 직접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NNplusplus" 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뉴스캐스터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100개의 단어를 추출해내는데, 이 단어들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단어들이 방송에서 읽혀질 때마다, 관객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들을 뉴스 화면에 병치시킵니다. 관객은 또한 뉴스 스크린 하단에 가짜 헤드라인 뉴스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관객은 세계 뉴스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관객들이 선택한 이미지와 그들이 작성한 위트 있는 헤드라인은 익명의 자기표현이 가능하면서 열정적이고 즐거운 토론의 장을 생산해냅니다. 소프트웨어와 라이브 TV, 관객의 참여를 통해 "CNNplusplus" 가 만들어내는 신속하고 매끄러운 편집 화면은 실시간으로 보도되죠. 이러한 속임수는 미묘하면서도 즐겁고 탁월하죠.

C: 헤이디씨가 만드신 애니메이션 작품 "Egress" 와 "Swallowed Whole" 은 어두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은유를 통한 표현방식은 작품을 더욱 더 시적이면서도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의 미학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H: 두 작품은 다른 미학을 가졌긴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디지털 콜라쥬를 통해 실제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죠. 관객이 분리된 다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작품에서 표현하려는 공간이나 활동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툴에서 시각적

In this work, as in many others, I focus on the importance of carving out "little pockets of freedom," even if they're temporary. I intentionally use recognizable behaviors to demonstrate a character's agency because I want the audience to recognize, and re-contextualize the meaning of that act. Even the smallest gesture possesses political power.

"CNNplusplus" was an interactive artwork that provided a means for TV viewers to modify the display of a live CNN news broadcast that was playing on a monitor in a cafe, waiting room, or other social space. This piece was inspired by the ubiquity of the screens we encounter: in waiting rooms, cafes, restaurants, bars, offices, airports. In the U.S.A., the number of televisions tuned to cable news channels proliferated after 9-11, and nearly all of them were tuned to CNN Headline News. I felt inundated, but recognized the visual formula that dictated how most news channels divide up the screen. This piece takes a playful and critical look at the juxtapositions of images and texts produced by the newscast, and remixes them to create new and unexpected messages. The purpose of this artistic intervention was to give agency to the viewer and allow them to "make the news."

The automated "CNNplusplus" software program tracked the frequency of words used by the newscaster and listed the current top 100 words, a collection of terms that gives a penetrating insight to the day's events. When any of these words was spoken on-air, an image, of the viewer's choice, was immediately sourced from the internet and displayed beside the newscaster. Viewers could also type in their own fake-news headlines to scroll across the bottom of the screen. This allowed viewers to change the world news to their liking and to express opinions to other viewers in the room. Incisive image choices and witty headlines composed by viewers spawned an ardent and entertaining forum for anonymous self-expression. Through the fusion of software, live TV, and audience input, this work created a speedy and seamless compilation that allows CNNplusplus to pass for a real news broadcast. The subterfuge is subtle, playful, and at times, transcendent.

C: We found your animation pieces "Egress" and "Swallowed Whole" very beautiful, regardless of their dark subject matters. And your use of metaphors seems to make your pieces more poetic and mystical. Please tell us about your aesthetics of these works.

H: These two pieces are different in their aesthetics but they both use digital collage to create a physical sense of space. My goal is to create an experience for the viewer so she/he can enter a separate and distinct world. The places and activities I want to depict in my work don't exist so I use digital tools to appropriate, cut up, and re-arrange visual elements.

In "Egress," I used layering, surprising juxtapositions, and transformations of objects into other objects to create the constantly evolving narrative and cityscape. Pol-

요소를 차용하거나 편집을 통해 이를 만들어내죠.

"Egress" 에서 저는 레이어링, 뜻밖의 병치, 오브제 간의 변형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나가는 이야기와 도시 풍경을 만들었어요. 가상의 대학과 아파트는 오염된 뿌연 안개에 가려지고 여인들의 실루엣과 그림자는 그 풍경 안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등장인물을 실루엣으로 표현함으로써 개개인 보다는 특정한 행동들에 주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통해 공간 인식에 뜻밖의 변화를 줄 수 있었죠.

작품에서 어떠한 변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지만, 보통 작품을 만들 때에는 우연한 "사고" 나 "실수" 에 의해 만들어진 효과들에 특히 주목하는 편이에요. 여러 겹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장면을 테스트할 때 종종 "실패" 한 실험의 결과가 결국은 더욱 강한 이미지와 컨셉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작품에서 여인이 나비로 변하는 장면에서 실수로 여인의 그림자가 계속 달려가게 만들었는데요. 권력의 손에 의해 희생양이 되기보다는 그녀의 일부가 책 속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은 마치 "한 줌의 자유" 를 얻는 것과도 같죠. 이처럼 작은 실수로 만들어진 부분이 결국 더 심오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Swallowed Whole" 은 충격적인 상처로 인한 극도의 고립과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을 담은 진지한 실험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저는 몇 년 전 썰매를 타다가 척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반 동안 침상에 반듯이 누워있어야 했고 종종 적막하고 혼란스러운 꿈속에서 사경을 헤맸어요.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마치 얼어 붙은 강 밑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죠. 삶은 제 위로 그대로 흘러가고 저만 밑에서 그것을 올려다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녹음된 음향이 어우러져 관객을 육체적, 정신적 고립과 치유의 과정을 응축적으로 경험하게 하죠. 영화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음향은 아티스트, 작가, 과학자를 위한 국제 연구 탐사인 "2013년 하계 북극권 탐험" 에서 수집한 것들이고요.

아날로그 TV의 수직의 필름 롤이 반복된 영상 편집을 통해 떨어지고, 깨지고, 충돌할 때 육체적으로 미치는 충격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어요. 말 그대로 제 등뼈를 부러뜨렸던 그런 충격 말이죠. 저는 관객이 뼈가 부러지는 음향과 삐걱거리는 움직임을 통해 반복되는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반복되는 트라우마는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이 있어요. 반복되는 불안정한 이미지들은 제 부상당한 몸의 나약함을 반영한 것이죠. 이 작품은 Joan Jonas의 "Vertical Roll" (1972)에서 장면이 바뀔 때 아날로그 TV가 잘못 동작하는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Swallowed Whole" 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동시에 단절시키는데 이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복 강박증을 표현한 것이죠.

luted and dusty air fogs the view of the imaginary university and apartment neighborhood while silhouetted female characters and their shadows move unobtrusively through the landscape. I use silhouetted characters as a way to focus on the general gestures rather than a specific person, and software and editing to create unexpected shifts in the perception of space.

While some of the animated transformations are intentional, my artistic process is heavily influenced by fortunate "accidents" or "mistakes," many of which appear in the final piece. I start by experimenting with various layered images in a scene and sometimes it's the "failure" of that experiment that results in better imagery and a stronger concept. An example from the piece: when I was animating the transition of the woman into the butterfly with the accompanying shadow, I accidentally let her shadow continue running. Instead of falling victim to the authoritative hand of power, part of her escapes into the books; defining a "pocket of freedom." There are many moments like this in which a small act takes on a more subversive or somber meaning.

"Swallowed Whole" is a somber, animated, experimental film about surviving extreme isolation and physical limitations as a result of traumatic injury. After breaking my back in a sledding accident, I was forced to lie supine on the couch for 3.5 months during which my mind often descended into a desolate, disorienting dreamscape. Feeling stifled, I imagined that I was trapped under a frozen lake; life continued on above me while I looked up from below. This sensation became the kernel from which I created this film. The film weaves together photos, animations, videos and sound recordings and takes the viewer on an abbreviated journey through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landscapes of hospitalization and recovery. Some of the imagery and sounds were collected during The Arctic Circle 2013 Summer Solstice Expedition, an international research expedition for artists, writers, and scien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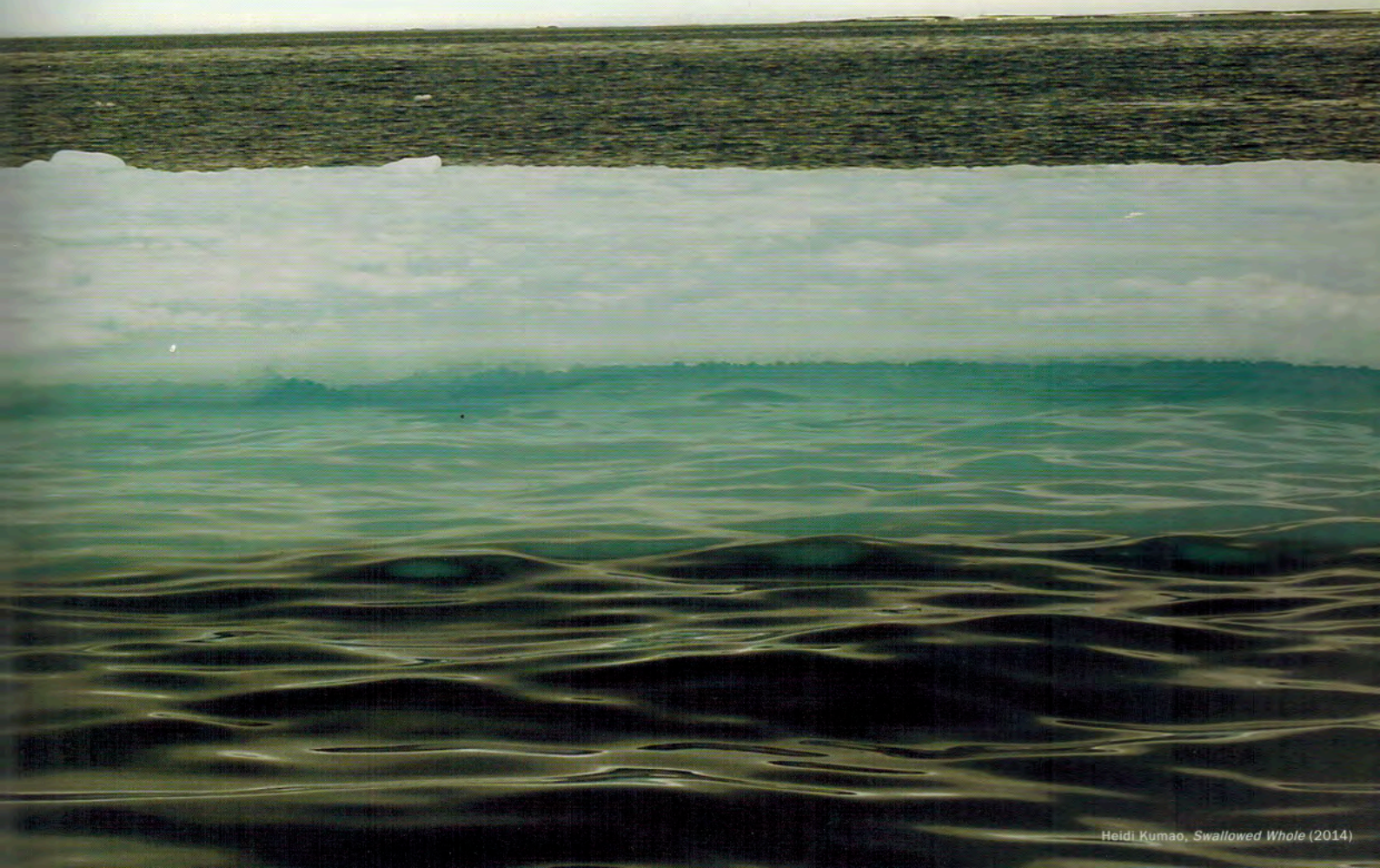
I edited the video to emphasize the physical impact of dropping, crashing, and slamming; repeated vertical frame-rolls from analog TV metaphorically replay the impact that literally broke my back. I wanted to create a video that viewers would feel; the bone-crushing sounds and jarring movement echo throughout the film mirroring the repetition of trauma, and the trauma of repetition, common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recurring instability of the image reflects the fragility of my injured body while providing a palpable experience for the viewer. The piece is inspired in part by Joan Jonas' "Vertical Roll," (1972) which uses a common analog television set malfunction to create a shifting stage of activity. "Swallowed Whole" uses fragmentation to both tell and disrupt the story and serves as a window of empathy into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petition compulsion.

BIO

http://heidikumao.net

헤이디 쿠마오는 영화, 조각, 연극과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작품을 하고 있다. 그녀는 구겐하임 파운데이션, 크리에이티브 캐피탈 파운데이션, 뉴욕 아트 파운데이션, AAUW(American Assn. of University Women), 미동부 파운데이션에서 연구 장학금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미국 내외에서 전시되었으며, Artforum, ArtPapers, 와 Sculpture 매거진에 소개되었다. 그녀의 최신작 "Swallowed Whole" 은 2015년 앤아버 필름 페스티벌, 블랙 마리아 필름 페스티벌, 트리키 국제여성 필름 페스티벌, 아틀란타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될 계획이다. 그녀는 현재 미시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Generating artistic spectacle through the intersection of cinema, sculpture, theater and technology, Heidi Kumao reframes ordinary gestures to explore their psychological underside. She has received fellowships from the Guggenheim Foundation, the Creative Capital Foundation,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AAUW (American Assn. of University Women),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nd the Mid-Atlantic Arts Foundation. She has exhibited her work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her work has been reviewed in Artforum, ArtPapers, and Sculpture Magazine. Her film "Swallowed Whole" will be featured in the Ann Arbor Film Festival, Black Maria Film Festival, Tricky Women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and the Atlanta Film Festival in 2015. She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Heidi Kumao, *Swallowed Whole* (2014)

About C.A.N.

시카미술관 C.A.N.은 '젊은' 문화 창작가의 관점에서 아트와 문화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프린트 미디어입니다. C.A.N.은 'CICA Art Now'의 축약어로, '할 수 있다'라는 단어인 'can'의 다소 무모하지만 긍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작가들의 열정을 중의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C.A.N.은 '정신'이 젊은 문화 창작가들을 후원합니다. 나이와 배경을 불문하고 열정과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모두 '젊은' 문화 창작가가 아닐까요? 질풍노도 청춘의 이유 없는 반항과 열정과도 같이, 눈먼 불나방과도 같은 창작의 욕구, 표현의 욕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C.A.N.은 '미술의 중심지'로부터 세계로의 일방적인 흐름을 극복하고자 세계 각 지역의 작가와 문화를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교두보가 되고자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여 지역의 작가, 디자이너, 관객, 주민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각자의 공간에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문화를 창출하고, 공유하고, 즐기고, 감동을 주며, 예술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C.A.N.은 문화 전반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술은 전시장 안에서만 관람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깊숙이 생활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습니다. C.A.N.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음미하고 관찰하며, 비판적이되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C.A.N., an online and print media issued by CICA Museum, is media for art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culture makers in spirit. C.A.N. is an acronym of CICA Art Now, and it also means a word "can," that stands for the positive and keen artists' passion. C.A.N. supports "young" culture makers, who have passion, critical thought, and desire for creative and experimental expression, regardless of their age and background. We have believed that our inexhaustible passion for art and expression and a reckless rebelliousness can change the world.

C.A.N. deals with visual art and culture from perspectives of local artists. To overcome uniform dissemination of contemporary art from the "center of Art," we aim to introduce local artists and cultures from different regions to global audiences and connect them with each other. C.A.N provides online and offline spaces to create a global network among local artists, designers, audiences, and communities so they can make, appreciate, and live in art in their regions and cultures.

Contents

About C.A.N. 8

Contents 9

Intro 10

Featuring Artists 12

Matt Kenyon, "Notepad" 14

Heidi Kumao, "Egress" 20

Sarah Nesbitt, "Migration" 32

Justin Lincoln, "The Stroboscope" 36

LaTurbo Avedon, an Artist and Avatar Living Online 43

Norbeto Gomez Jr., "I Will Not Make Art in Brooklyn" 54

Jeong-ju Jeong, Gaze, Space, Movement 59

Byeongwon Ha, "Parallax" 66

Junsung Kim, Archeology" 70

Sin Ifie, "Salt City" 82

Leejin Kim, "Kot-mi-nam & Elf" 90

Credits & Thanks 103

Heidi Kumao, *Swallowed Whole* (2014)